



‘네 탓’ 국회…국민은 속단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민주당 본회의 거부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법정으로’

市 속속 협약 체결 속 오는 11일 첫 재판
행정절차 적법성 다룰 듯…결과 예의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시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한이 촉박해지면서 ‘업체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는 협약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최종 사업협약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과 시가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창과 방패’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려 주목된다.

현재 남은 대상지는 수광(오렌지엔씨), 송암(고운건설), 중앙1지구(한양건설), 중외(한국토지신탁) 등 4개로 연말까지는 모두 협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들은 협약체결 후 한달 이내 총사업비의 5분의4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넣고,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한다. 시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점이어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련 재판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오는 11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이후 첫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전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된다. A씨는 공무원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A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평가표를 광주시의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 등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앞서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숨 돌리는 듯했다. 그러나 직후에 검찰이 정무특보실과 해당 건설업체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확대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다이지

수능 성적 312명 ‘사전 조회’ 공식발표 예정대로 4일 오전

“사전조회자 법적 대응 검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수험생 300여명이 성적을 미리 확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해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전 유출을 확인하면서도 “수능 성적은 당초 예정대로 4일 오전 9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일 평가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6분부터 이날 오전 1시32분까지 3시간36분 사이에 수능 응시생 총 312명이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성적을 사전 조회 및 출력했다. 이들 학생이 조회한 성적은 올해 본 수능 성적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과거 수능 성적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하는 대국민 상시 서비스다. 평가원은 “학생 312명은 이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본인을 인증한 다음 ‘소스 코드’의 취약점을 이용해 연도 값을 ‘2020’으로 변경했다”면서 “졸업생(재수생)에 한해 가능했으며, 다른 사람의 성적은 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성적 공개 예정일(4일)을 앞두고 사전 조회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와 올해 수능 성적 데이터가 연결돼 있었는데, 일부 응시생이 이 사실을 발견해 올해 성적을 조회했다는 것이다. 평가원은 관계자는 성적을 사전 조회한 312명이나 사전 조회 방법을 온라인상에 유출한 응시생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은 “법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전날 밤 한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응시생이 ‘수능 성적표를 미리 발급받았다’고 인증하면서 촉발됐다. /연합뉴스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 연다

오늘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별관 1층

보안사가 39년 만에 공개한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가 3일 오후 2시 5·18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개최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안신당 박지원·장병완·천정배·최경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며, 5·18 주요단체 대표들과 회원,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6일 공개된 1천769장의 5·18 관련 사진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5·18 기념재단 이성준·안길정 자문위원과 5·18기록관 김태중 연구실이 발표한다. 최 의원은 “1980년에 보안사가 생산해 가지고 있던 5·18 비공개 사진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공유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39년 만에 공개된 사진 자료들을 향후 진상조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보안사 5·18 사진첩’ 17권 중 13권(5·17권, 1천769장·중복 포함) 복사본을 국가기록원에서 받아 공개했다. /김종민기자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현장 토론회」
2019년 12월 4일(수), 13:30 | 대구광역시청 10층 대회의실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신문협회

호남 최초 스마트폰 방송국 광주매일 TV
광주매일TV KCTV광주방송 오성수의 이슈 분석 · 11월 첫째주
제11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시상식
제6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료식
▶ m.kjdaily.tv ▶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사정문의 062)650-2024

우체국 예금

나를 알아주는 착한금융

소중한 자산, 잘 지켜주고 불려주고~ 금융의 기회,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당신 결연 늘 우체국금융이 있습니다.

우체국금융

소중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가득 담긴

우체국 택배

1588-1300

우체국 쇼핑

참 가까운 우체국 쇼핑

안심 쇼핑 1번지 우체국 쇼핑

우체국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

당신을 우체국FC(보험설계사)로 모십니다.

지원문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으로 문의

EMS

스마트 접수 서비스

EMS 스마트 접수 서비스 이용하고, 요금 5% 할인받으세요.

우체국 준등기우편서비스

일반우편물을 수취인 주소지의 수취함 등에 배달한 경우, 발송인에게 배달결과를 카카오톡, SMS 등으로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입니다.